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iubo.or.kr>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마태 4,1-11 참조)

예수님께서서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가 하도 익숙해서 그리 놀랍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분도 단식 끝에 시장하셨고, 또 우리가 경험하듯 그분도 마음에 유혹을 느끼시고 갈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인간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산성당 종탑 위의 십자가와
4복음사가의 상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창세 2,7-9; 3,1-7

제2독서 로마 5,12-19

복음 마태 4,1-11

입당송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화답송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유혹을 극복하는 길

나기정 다니엘 신부 | 천부본당 주임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시기는 지난 수요일에 가졌던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머리에 재를 받고, 보속과 재계의 시간을 가질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거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울림을 들었습니다. 재를 머리에 받음으로써, 이날 복음 말씀처럼 단식과 기도와 자선에 힘쓰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단식’은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여 그리스도의 수난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며,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된 이들에게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자선’을 통해 자신의 희생한 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어 자신과 세상의 죄와 악을 기워잡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지내기 위한 생활 덕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순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악의 세력’(마귀)으로부터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멸망할 처지에 놓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이 받게 될 유혹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유혹을 극복하는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

게 당신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유혹은 쉽게 넘어가는 재물이나 물질적 유혹입니다. 배고픔과 허기진 고통은 물질적 결핍을 어떻게든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유혹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일시적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유혹은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작은 권세로 큰 힘을 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곧 권위를 주신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혹은 악에 굴복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타협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과는 타협하거나 절충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느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시기를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방치되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며, 사순시기 실천 덕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실천하며, 오로지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뜻만 따르는 삶이 되도록 자신을 정화하는 은총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필문**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4년 사순시기 담화(요약)

그분께서는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2코린 8,9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힘 있고 부유한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영광을 벗으시고 자신을 비우시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히브 4,15 참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는 모두 하느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은총이고 너그러움이며 가까이 하려는 열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일하시고 인간의 정신으로 생각하시고 인간의 의지로 행동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 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셨으며, 죄 말고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사목 헌장 22항)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논리, 곧 사랑의 논리, 강생과 십자가의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유하게 해 주시고자 택하신 이 가난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가장 큰 부요입니다. 예수님의 부요는 그분이 **아드님**이시라는 데에 있으며, 아버지와 맺으신 유일한 관계가 이 가난한 메시아의 최고 특권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난을 통하여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부요는

우리의 부요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에 힘입어 실천하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가난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빈곤은 가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믿음과 연대와 희망이 없는 가난입니다. 이 빈곤에 맞서 교회는 도움을 주면서, 곧 봉사(diakonia)를 하면서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인류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그 상처들을 감싸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복음은 영적 빈곤의 참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순시기에 교회 전체가 물질적, 도덕적,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증언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2코린 6,10 참조)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빈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키우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자비로워지고 또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운전 매너

이지운 시몬 신부 | 월성분당 부주임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했던 때는 1996년이었습니다. 도로 위의 차들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고, 휘발유 1리터의 가격도 600원밖에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며,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배웠던 운전 매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양보해 준 운전자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손을 들어 표현을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실천했던 당시의 운전 매너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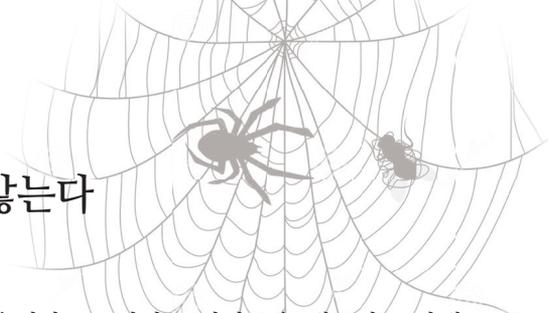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러한 매너가 도로 위에서 사라진 듯 보입니다. 요즘은 손을 들어 인사하는 운전자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손을 드는 대신 비상등을 켜다가 끄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서로 남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일까요? 어쨌든 삭막해져가는 운전 문화를 보며, 손을 들어 서로 인사를 해 주던 그때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 주십시오.”(티토 2,7)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소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지만, 그 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혀 가는 배려와 매너를 다시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손을 드는 작은 동작 하나이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담아 표현한다면, 삭막한 도로도 조금 더 따뜻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과 배려의 실천이, 바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땅 위에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운전 문화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문**



유혹은 쉬지 않는다



어떤 거미가 낡은 집에 아름다운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거미는 거미줄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했는데, 파리들이 웅웅거리다 걸리곤 했습니다. 거미는 언제나 이 ‘단골고객’이 걸리자마자 깨끗이 치우고는 다른 파리들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꽤 지적인 파리가 깨끗한 거미줄 근처를 웅웅거렸습니다. 그 때 거미가 소리쳤습니다. “이리와 앉아 봐요” 그러자 파리는 “괜찮아요. 나는 당신 집에 있는 다른 파리들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혼자만 가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리는 곧 갈색의 종이 테잎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많은 파리들을 보았습니다. 내심 기뻐하며 많은 파리가 있는 것을 보니 저기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종이 테잎 위에 막 앉으려는 순간 지나가던 벌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앉지 마. 이 바보야! 그건 너를 잡는 덫이란 말이야.” 그러자 꽤 지적인 파리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겁주지 말아요. 저 파리들은 춤을 추고 있어요. 저기에 있는 수많은 파리가 보이지 않나요. 모두가 춤을 추고 있잖아요. 저렇게 많은 파리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해요.”

하나의 유혹을 피했다고 해서 다른 유혹이 피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독**

금주의 성인

3월 9일	성녀 가타리나(수녀원장, 볼로냐, 1413~1463년), 성 도미니코 사비오(증거자, 1842~1857) 성 보사(주교, 요크, 705년경), 성 파치아노(주교, 저술가, 바르셀로나, 310~390년) 성녀 프란치스카(설립자, 로마, 1384~1440년)
3월 10일	성 마카리오(주교, 예루살렘, 335년), 성 심플리치오(교황, 483년) 성녀 아나스타시아(은수자, 6세기), 성 아탈라(수도원장, 보비오, 627년) 성 히멜리노(신부, 비세네켄, 627년)
3월 11일	성 소프로니오(주교, 예루살렘, 638년경), 성녀 아우레아(동정녀, 산 밀란, 1100년경) 성녀 알베르타(순교자, 아쟁, 286년), 성 콘스탄티노(수도원장, 순교자, 스코틀랜드, 6세기경) 성 피르미노(수도원장, 페르모, 1020년)
3월 12일	성 베르나르도(주교, 카푸아, 1109년), 성녀 세라피나(소녀, 토스카나, 1238~1253년) 복녀 유스티나(동정녀, 아레초, 1319년), 성 테오파네(수도승, 증거자, 시그리아나산, 817년)
3월 13일	성 루데리코(신부, 순교자, 카브라, 857년), 성 마체도니오(순교자, 304년) 성녀 모데스타(순교자, 304년), 성 살로몬(순교자, 857년) 성녀 크리스티나(동정 순교자, 페르시아), 성녀 파트리치아(순교자, 304년)
3월 14일	성녀 마틸다(왕비, 895~968년), 성녀 바울리나(과부, 켈, 1107년) 성녀 아프로디시오(순교자, 아프리카, 5세기), 성 에우디키오(순교자, 741년)
3월 15일	성녀 레오크라시아(동정 순교자, 코르도바, 859년), 성 론지노(군인, 순교자, 1세기경) 성녀 루도비카 드 마리약(과부, 설립자, 1591~1660년), 성 즈카르야(교황, 752년) 성녀 마트로나(하녀, 순교자, 테살로니카, 350년), 성 클레멘스(신부, 순교자, 1751~1820년)

■ 염수정 추기경님 서임 감사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4일(화)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봉헌된 염수정 추기경님의 서임 감사미사에 참석하셨다. 이날 미사에는 대주교님을 비롯한 주교단과 사제, 정계와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일반 신자 등 1,800여 명이 참석했다.

■ 현풍성당 제대축성식 및 안드레아유치원 축복식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3월 2일(일) 오전 10시 30분 현풍성당(주임: 안병권 세례자요한 신부) 제대 축성식 및 안드레아 유치원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월간 <빛>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 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작심 3일이 아년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성 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3월 10일(월) 20:00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0일(월) 11:00 월성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15일(토) 10: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10일(월) 11:00 성건성당	미باه회 월례미사	3월 15일(토) 11:00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평화미사	3월 15일(토) 15:00 프란치스카눔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한중(韓中) 천주교 친선협회 월례미사	3월 15일(토) 18:00 계산문화관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0일(월) 11:20 범어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땅끝 모임

일시: 3.16(일) 14:00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대상: 해외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로고스 수녀, (010)9319-1690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19차: 4.4(금)~6(일)

14차 MR: 5.17(토)~18(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 ME, 983-0521

성소자 개인 무료 피정

전화상담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장소: 툇썩포교베네딕도회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제9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3.14(금) 22:00~16(일) 16:00

준비물: 세면, 필기, 미사도구

문의: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 집

(055)382-9465~6 / 전화접수

청년 사순 피정

기간: 3.22(토) 16:00~23(일) 16:00

장소: 삼위일체수녀회(부산 영주동 본원)

주제: 십자가, 희망나무

회비: 2만 원

문의: (051)463-7660 / (010)2887-7660

교육 | 모집

49차 선교대학

일시: 3.15(토) 10:00~16:00

장소: 계산문화관 / 수강비 무료, 중식제공

주제: 사람 낚는 어부

강사: 이판석 신부 / 선착순 100명

문의: 한국가두선교단, 781-6100

새빛학교 기초영어 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3.11(화) 13:00 (주 2회)

한문개강: 3.11(화) 15:00 (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 (교대역)

중국어(中國語) 성경성가교육 및 회원모집

중국어 성경: 매주(토) 16:20

중국어 성가: 월례회미사 30분전

대상: 중국어 초급정도의 모든 신자

문의: 한중(韓中)천주교 친선협회,

(010)2662-1560

오순절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차정숙레지나, (010)9510-6962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3.18~6.17(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2014년 3월 입주, 총 264세대 1,000

병상, 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

일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280-1500

<http://www.marisstella.or.kr>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외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코비한의원

대구수성점 대표원장이 판 제(투까)

☎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미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리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일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내선)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역(구,달성군청자리)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실리아), 강윤정(아네스)

일본성지순례

나가사키, 이라도 4일 : 뱃부, 오이파
출발일: 4월 24일 : 아소, 구마모토 4일
6월 05일 : 출발일: 5월 29일

☎ (053)253-3399
www.sungjitour.com
☎ (주)성지여행 포탈레(유스티노)

2014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3.16(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대상: 1~5대리구 예비신학생
 부모님도 참석 가능하며, 미사 후 학년별, 지역별 모임 있습니다.

행사 | 모임

3월 가나강좌

일시: 3.23(일) 넷째 주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압량 대학생 주일미사

일시: 매주 주일 17:00
 장소: 압량 대학생 거점본당
 대상: 영남대학교학생 및 인근대학교학생
 문의: 817-5885 / (010)4021-6804

이노주사 청소년 사목, 희망을 말하다

일시: 3.15(토) 19:00~21:30, 매호성당
 순서: 미사 / 청소년 공연 / 토크 / 이노주사 공연

대상: 청(소)년, 관심있는 모든 이들
 주관: 수원교구 청소년사목토착화연구회

프란치스코회 김인규 신부 성화전시회

기간: 3.15~21(1주간) 10:00~18:00
 장소: 월배성당 교육관 1층

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일시: 3.12(수) 14:00
 장소: 교구청 내 사도회 사무실
 문의: 강청남, (016)520-8330

교육 | 모집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3.26(수) 14:00~16:30, 접수: 13: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만 원
 주제: 행복한 아이로 만드는 초등교육
 강사: 김영옥 세실리아(계명대학교 교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특강

일시: 3.22(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주제: 구원에 이르는 길 / 5천 원
 강사: 황창연(베네딕도) 신부
 -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미사전례와 신자생활, 성화와 성경 이야기, 신앙의 무대(대구역사, 문화), 나의 멘토-한국의 위대한 사상가들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다문화 아카데미 봉사자 기초교육

기간: 3.19~6.4(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마감: 3.18(화)까지, 팩스: 850-3976
 교육비: 2만 원
 문의: 대가대 다문화연구소, 850-3706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고려수지침: 4.1(화) 13:30
 성지순례스페인어: 4.1(화) 15:00
 문학 창작교실: 4.2(수) 14:00
 건강태극권: 4.4(금) 13:00
 문의 및 신청: 254-6115

영남지역 CPE 세미나 개최

일시: 3.30(일) 9:30~16:3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남산동)
 주제: 대상관계이론에 의한 가족치유와 영적돌봄
 문의: CPE센터, (010)4143-5508

채용 | 안내

해외 유치원 교사 채용

모집: 2명(브라질 상파울로 유치원 교사)
 문의: 성체유치원, (010)9529-2696

계산서원 직원 채용

자격: 30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257-8962

2014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일자: 8월, 12월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2014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2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큰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이정확**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싱),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 (053)651-2233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안경원 리네뜨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불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윤원희 성명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원(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과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미소나리 misonari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롯데리아
두산 D/I점
단체주문
 TBC방송국 두산오거리 들안길 방향 50m
 ☎ 053)767-0801
 010-2547-1375
 홍기호(베드로), 장선희(테레사)